

IV. 조선의 성립과 발전

주제 23) 호란의 발발과 북벌운동

학 교	
학 번	
성 명	

1. 조선의 15대 왕 ()의 업적

1) 전후복구사업 실시

			
양전사업 통해 손실된 토지 복구	남한산성, 북한산성 복구	군역법 실시로 군역 부담 줄임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

2) 명나라와 후금과의 관계에서 ()

	명의 요청으로 12000명의 군사를 출병한 조선의 원병은 명의 제독 유정의 군대와 합류하여 적을 치기로 하였으나, 부채(富車)에서 패배를 당하여 약 9000여명이 죽음을 당하였다. 이에 () 장군은 ()	
		

3) ()의 폐위와 ()의 즉위

① () 폐위의 원인

㉠

㉡

② 당시 ()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주축이 되어 ()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함.

<버리는 곳>

2)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① ()

- ㉔ ()가 왕이 된 이후 국내에서는 이괄의 난에 의한 혼란이 나타났으며 ()의 외교정책에 불만을 가진 후금이 조선을 공격
- ㉕ 이후 후금이 압록강을 건너 황해도 지역까지 침입을 받았으며 인조는 () (으)로 피신
- ㉖ 당시 후금도 명나라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금은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고 후금과 조선이 형제관계의 맹약을 맺고 화의 체결

② ()

- ㉗ 후금이 명나라를 압박해나가면서 세력을 키우면서 국호를 청이라고 바꿈
- ㉘ 청은 조선에 무리하게 공물을 요구하였으며 이전의 형제관계를 넘어 군신관계를 요구
- ㉙ 조선이 청의 요구를 거절하자 청나라 태종이 직접 조선을 침공 ⇒ 인조는 강화도(으)로 도망가려 했으나 실패 ⇒ ()에서 항전 ⇒ 결국 청나라에 패배하게 되면서 청의 군신관계 수용

3) ()의 대두

1637년 병자호란에서 조선은 청나라에 크게 패배했고, 인조가 굴욕적으로 항복하면서 조선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새롭게 힘을 잡으면서 사람들은 정체성 혼란과 자존심의 상처를 깊게 입었다. 이 무렵 청나라에서 8년 동안 볼모 생활을 했던 ()은(는) 즉위 후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는 뜻을 굳게 품고 북벌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왕이었던 ()의 북벌운동을 전개하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군대를 키우고자하였다. 그는 어영청을 설치하고 훈련도감을 확대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했으며, 성곽을 보수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였다. 또한 노비 조사를 통해 세금을 거두고 호패법을 시행하는 등 재정을 확보하며 인적 자원을 정비하였다. 지방군도 속오군 훈련을 강화하고 영장을 파견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학자 ()은(는) 병사도 키우고 백성도 잘 돌봐야 한다는 '양병양민론'을 내세워 현실적인 대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북벌운동은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피해와 자연재해로 국가 재정은 부족했고, 백성들은 세금과 군사 부담으로 고통을 겪었다. 또한 청나라가 조선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효종이 죽고 정치 세력이 무너지면서 북벌운동은 중단되었다. 비록 북벌은 실패했지만, 이는 조선이 다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나라를 현실적 강국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배워야 한다는()과 같은 새로운 정치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① 배경

- ㉚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 굴욕적으로 강화를 맺은 이후 청에 대한 복수심 고조
- ㉛ 당시 ()의 외교정책을 실시하였던 집권세력이었던 ()의 위신이 크게 실추
- ㉜ 이에 청나라에 당한 수치를 복수해야 한다는 ()이 대두됨

② 전개

- ㉝ 학자인 (), 이완등을 중심으로 북벌운동 주도
- ㉞ 북한산성, 남한산성의 보수, 군대 양성
- ㉟ 청의 원병 요청에 응하여 청나라와 러시아의 전쟁에 조선의 조총부대 파견하여 승리 ()
- ㊱ 하지만 지나친 군사력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효종의 죽음으로 실행되지 못함
- ㊲ 청나라가 강력한 국력을 구축하게 되면서 청나라를 정벌하고자 하였던 ()이 좌절되면서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 ⇒ () 성행